



2면

‘CES2024 전북공동관, 다시 한번 재현’

2024년 2월 6일 화요일 (음 12월 27일) 제344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장수·진안·무주 더 특별해진다’

전북자치도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 장수·진안·무주

김 지사, 비전·추진 방향 설명 도민 의견 수렴
지자체장들, 지역별 특례 활용 발전전략 발표

전북특별자치도와 장수군·진안군·무주군은 5일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서거석 교육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세 지역의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보고회장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개정 내용을 5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 진안·무주·장수군에 해당되는 주요 특례 사례를 설명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심수 차례 넘는 큰 박수로 화답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진안·무주·장수군과 협력해 올해 말 본격적인 시행까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훈식 장수군수의 스마트 농생명산업과 국제산악관광도시 조성 등 관련 분야 특례를 활용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발전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미래농업 중심 농생명산업 거점과 국제 산악관광도시를 특화전략으로 강조하며, 특히 청년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미래지향적 첨단농업 구현과 산악레포츠 대회의 국제화를 통한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

유한 복합형 산악관광단지 조성을 미래 전략으로 제시했다.

최훈식 군수는 “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에 발맞춰 장수군 역시 장수군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함께 발전하겠다.”며 “미래 비전에 함께 공명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은 마이산, 구봉산, 용담호 등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산림·자연·문화자원이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그간 발전에 소외돼 왔지만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 및 산림 문화·휴양·복지 등 산림관련 특례를 발굴 및 반영해 자원보존원칙에 기초한 조화로운 개발과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춘성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그동안 지켜왔던 고유의 가치와 자산이 미래의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군립자연휴양림, 지방정원, 등산학교, 지역권 산지약용식물 특화 산업과 등 생태자원의 강점을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특례 발전 전략으로 농생명산업 분야에서 고랭지 친환경 스마트팜 단지화 및 전미산업클러스터 조성, 문화관광산업 분야에서 국립 기후변화 수목원 유치 등 산악관광육성과 자연의 빛을 활용한 친자연 야간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기회는 무주에서 찾을 수 있다며, 특례를 바탕으로 무주다운 가치를 높이고 전북자치도의 비전 실현을 무주와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는 이날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전문선 기자



5일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수·진안·무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 참석자 300여명이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 바이오산업 집적지 조성 외연 확장

자치도, 하버드 의대 나노메디슨연구소와 협약 체결
도내 대학·세계 최고 연구진들과 인재·기술 교류
바이오 특화단지 위한 공동사업 발굴·연계 협력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바이오분야 앵커기업들과 잇따라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외국의 유명 혁신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바이오산업의 집적지 조성을 위한 외연을 확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사진 3면)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 회의실에서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하 MGH) 의공학·나노메디슨연구소(소장 최학수)와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해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MGH는 지난 1811년 설립된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의료기관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도내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거점 역할을 맡게 될 전북대학교 송철규 연구부총장과, 원

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정병엽 소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이 참석해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해외 의사와과학자와의 공동연구와 한·미 연구 중심병원의 협력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이날 협약은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자치도로서는 도내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연구진들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

게 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대, 원광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을 통해 연계 인재 교류 및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며, 글로벌 선도 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바이오 분야 기술 및 정책 교류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대 의대, 원광대 의대 등 병원 중심의 국제 공동 임상연구 및 맞춤형 정밀의료 연구협력을 통해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보스턴(하버드)-전주(전북대)-익산(원광대)-정읍(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4개 지역의 사업추진 체계가 갖춰져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힘이 모아진 상황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특별한 지역축제 ‘풍성’ | 시군 대표축제 14개 등 총 36개 최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특색도 출품 첫해를 맞아 2024년에 중점적으로 육성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3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표축제 등 분야별 육성 축제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축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제 기획 및 콘텐츠, 조직 역량, 안전관리 등을 종합평가해 지

역의 특색 있는 향토·문화·관광자원 등 우수성을 일일 수 있는 축제 14개, 시군 대표축제 14개, 작은마을축제 14개, 지역특화형축제 8개를 선정했다.

이중, 2024년 시군 대표축제는 대표축제로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최우수축제로 군산시간여행축제, 완주와이드&로컬푸드축제, 장

수한우람사과랑축제, 임실N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 고창도양성축제, 우수축제로 전주비빔밥축제, 정읍구절초꽃축제, 진안홍삼축제, 부안바실축제, 유망축제로는 익산서동축제, 남원홍부제 등이다.

자치도는 지정 축제에 대해 도비 보조금 지원과 함께 축제별 맞춤형 사전컨설팅, 축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축제 현장평가 등 간접 지원을 통해, 축제 기획단계부터 종료 후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지역축제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만의 이색적인 축제콘텐츠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소강대국의 꿈

대한민국 새만금이 꽃피웁니다

투자진흥지구 대규모 부지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재생에너지 100% 실현